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80명 작가, 비엔날레 빛낸다



아시아 최대 현대미술축제인 제 14회 광주비엔날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광주비엔날레는 21일 화요일인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열리는 제 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비엔날레의 특징은 ‘주목받아야 할’ 작품들에 집중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신작 비율이 50%로, 한국에 처음 공개되는 작품은 90%에 달한다. 참여 작가는 총 80명. 비엔날레는 이날 58명의 작가만 공개했다.

전시 기획을 맡은 이숙경 예술감독은 “이번 비엔날레는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은은한 광륜’, ‘조상의 목소리’, ‘일시적 주권’, ‘행성의 시간들’ 등 네가지 소주제 아래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대주제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엇보다 다양한 계층의 작가, 다양한 연구 및 협업기반 커미션을 시도해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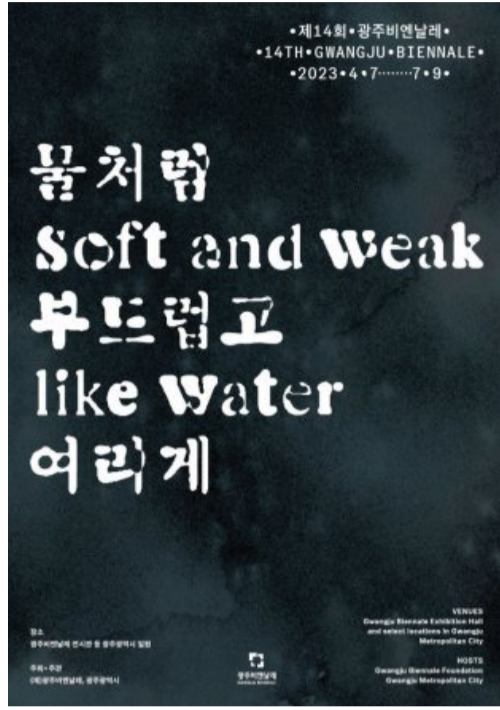
비엔날레가 공개한 작가 및 작품 중 하나인 크리스틴 선 킴의 ‘모든 삶의 기표’는 작가가 농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참여 작가의 다양성 외에도 작품을 통해 농인 사회의 소통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작가는 그동안 농인 사회가 소통하는 방식을 모티브로 작업을 해왔다. 수화는 같은 동작일지라도 국가별로 그 의미가 다른데, 이 작품은 미국 수화 언어 내에서 숫자가 세어지는 방식을 다루고 있다.

일본 아이누족의 마운키기 작가도 눈여겨 볼 만하다. 작가는 아이누 예술가이자 음악가인 자신의 정체성에서 출발해 일본 사회에 남아있는 선입견을 해로운 과정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비엔날레는 여성 작가에도 집중했다. 싱가포르에서 태어나 1997년 고고한 ‘킴 립’은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미술사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녀의 ‘물 연작-청동’ 작품은 작가가 발전시킨 탈국가적 사고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숙경 예술감독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포스터

제 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계획 공개...신작 비율 50%

5관으로 입장해 1관으로 관람...역류하는 ‘물’ 이미지 상징

전통에 대한 고안점을 제시하는 작가들도 함께 한다. 카자흐스탄 젊은 여성 예술가 바킵 부비카 노바는 ‘오리엔탈 세밀화 따라 그리기’ 회화 연작을 선보이며 특정 관습을 의미 없이 답습하는 행태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이번 비엔날레는 연구 및 협업기반 커미션에도 많은 비중을 뒀다. 비엔날레와 협업한 멕시코 출신으로 뉴욕에서 초상화 작가로 활동 중인 알리자 니센바움은 놀이패 신명을 초상화로 풀어내는 작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비판해온 작가 고이즈미 메이로는 고려인 동포들의 영상 작업을 매개로 한국과 닮은 강제 이주의 역사를 가진 이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비엔날레 전시 장소는 국립광주박물관과 남구 양림동의 호랑가시나무 아트플리온으로, 박물관의 경우 장소의 특성을 활용해 소장 유물과 유기적 호흡을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역사적 배경과 유물 특성을 연계한 작품을 통해 다양한 재해석을 시도해볼 수 있다.

호랑가시나무 아트플리온에서는 자연광에 반사된 작품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마존 숲속에서 예술작업을 펼쳐온 비비안수티 아르렌티나 작가의 작품 10여점을 만나볼 수 있다.

비엔날레는 동선을 통해서도 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5관(들어섬)으로 입장해 1관(행성의 시간들)으로 빠져나오는 ‘역순’을 택한 점이 이색적이다.

가장 작은 공간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 결국엔 가장 큰 공간으로 어깨를 펴고 나오는 방식을 시도한 것은 역류하는 ‘물’의 이미지와 오버랩된다.

이 감독은 “관객들로 하여금 4개의 전시관이 모두 독립적인 전시로 느껴지게 하고 싶었다. 모든 전시를 보고 마지막 관을 빠져나왔을 때 비로소 머릿 속에 전체 전시에 대한 그림이 하나로 그려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화려함 속에 깃든 사유의 흔적

김해성 ‘숲의 친구들’ 전, 25일까지 양림미술관

서양화가 김해성의 개인전 ‘숲의 친구들’이 오는 25일까지 양림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이기심이 많은 인간들로 세상은 아름답게 존속할 수 없으리라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성찰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색감은 화려하고 투명하지만 그 안에 깃든 사유의 흔적은 결코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작가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록적인 자연현상들이 되풀이되는 상황은 좀 더 편하게 살겠다며 만들어 온 문명의 이기들이 남긴 찌꺼기라고 본다.

작품들을 보다 보면 작가가 던지는 목직한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바이러스 창궐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 재해는 사실 자연이 보내는 무서운 경고라는 것을 인간들은 알아차리거나 할까?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함께 노래하는 유토피아 같은 지구는 존재하기 힘든 것일까?

작가는 일상이 영망으로 형용어진 팬데믹 기간 하루 한 장의 그림을 그리겠다는 생각을 견지했다. 어찌 하다 보니 몇 년이 흘렀고 이번 전시회에 나온 몇 점은 그런 작업의 산물이다.

그는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할 숲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그 안에서 함께 공존해야 할 많은 동물들이 모습을 감추고 있다”며 “메마



‘꽃향기’

르고 황폐한 채로 이 지구의 미래는 디스토피아로 귀결될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른들엔 추억을, 아이들엔 낭만동화를

거기가면 ‘소라별이야기’ 마스크 연극, 24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창작집단 거기가면’은 마스크 연극이라는 장르를 개척해 다양한 작품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마스크 연극을 매개로 선보이는 가지각색의 얼굴은 창작집단 거기가면이 선보이는 새로운 무대연이라는 평을 받았다.

창작집단 거기가면이 마스크연극 ‘소라별이야기’ (사진)를 오는 24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선보인다.

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이 추진하는 우수 공연초청기획사업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그 세 번째 공연으로 기획됐다.

이번 작품은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낭만동화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형형색색의 반 마스크를 이용해 아이들과 육장이 할아버지, 물의 요정 등 다양한 캐릭터를 표현한 것이 묘미다.

연극 ‘소라별이야기’는 2012년 독일 Folkwang Physical Theatre Festival에 공식 초청돼 호평을 받았다. 제12회 포항바다국제공연예술제 프린지 부문 ‘최우수작품상’, 2013년 김천 국제 가곡연극제 연출 상·대상·최우수 연기자 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빛고을시민문화관은 문화소외계층 30%를 무료 초청한다. 입장료 5000원. 문의 062-670-792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전남문화재단,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

전남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에 박차가 가해진다. 전남문화재단은 ‘2022 농산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리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과 전라남도의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진행된다. 문화예술교육 접근성이 부족한 고흥군, 신안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등 5개 지역의 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전남문화재단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농산어

촌 학교와 지역예술가의 협업을 통한 창의 융합 프로그램 설계, 농산어촌 학교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실행 등을 지원한다.

김선출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산어촌에서 자라나는 세대에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은 물론 세대 간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역 곳곳에서 창의적 미래 문화예술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문화예술단체 ‘극단 아미’가 협력학교인 ‘신안 지도초’에서 창의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체험한다’

법정스님 미공개 편지...영인문학관, 23일부터 기획전

“요즘은 난초를 볼 때마다 ‘종연생(從緣生) 종연멸(從緣滅)’이라 뇌이곤 합니다. 인연으로 좇아 왔다가 인연 따라 간다는 말로써 스스로 달라고 스스로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요.”

생전 문인들과 두루 교류하며 깊은 우정을 쌓은 법정스님은 서울 봉은사 다래현에서 머물던 1970년 8월 소설가 김재원(76)에게 원고지 6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보냈다. 2년 가까이 돌보던 난초가 시들자 물을 주고 분갈이도 해보지만, 상례가 여전히 좋지 않자 난초와 헤어질 때가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마음이 좀 그렇다”고 속내를 털어놓는다.

1975년 서울살이를 정리하고 전남 순천 송광사

뒷산 불일암에 은거하던 법정 스님은 1976년 11월 프랑스에 가 있는 김재원에게 편지를 썼다. 스님은 “겨울철에 땀감을 준비하고 도장 손질하느라고 손질이 많이 거칠어졌소. 한보름 지나면 김장을 할 것이요. 산에서 혼자 사니 출가분해서 좋은 데 일이 많아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소”라며 근황을 전한다.

그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법정 스님의 편지 일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영인문학관(관장 강인숙)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기획전 ‘편지글 2022’를 열고 법정스님을 포함한 여러 문인과 예술가가 주고받은 편지와 메모 등 100여 점을 공개한다.

/연합뉴스

‘우리 안의 화인 음식이야기’

김지교 대표 특강...28일 ACC

‘우리 안의 화인 음식이야기’ 다섯 번째 오프닝이 열린다. 오는 28일 오후 3시 ACC 라이브리리파크 북라운지.

이번 특강에는 김지교 문화유산기술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선다. ‘디지털 세계에서 생명력을 이어가는 문화유산 이야기’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김 대표는 지난 18년 동안 진행해 왔던 유네스코 세계유산 디지털 헤리티지 프로젝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김 대표는 ‘화인 음식문화 메타버스 콘텐츠’와 관련 문화유산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는지를 조명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종가 the 거문고’ 속으로

한국전통문화연구회 영암지부 종가음악회, 27일·10월16일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영암지부가 이달 27일 김해김씨 감무공 사준과 종가(김완장군 유적지), 10월 16일 종양루(전주 최씨 연촌공파 종가)에서 ‘종가 the 琴’을 펼친다.

공연에는 불후의 명곡 스타 소리꾼 유태평양, 문치빈 무용가를 비롯해 영암 향교 여성 유도회, 한국전통문화연구회 영암지부 가야금연주단이 함께한다.

27일 첫 번째 공연에는 영암향교 여성유도회와 한국전통문화연구회 학생 가야금연주단이 함께한다. 내달 16일 열리는 두 번째 공연에는 유태평양이 ‘비나라’, ‘사철가’, ‘십정가’ 등 불



유태평양

후의 명곡 시리즈를 선보인다.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이들이 천년의 소리 가야금과 함께 판소리, 무용, 사물놀이의 흥겨운 국악에 어깨를 들썩이며 지친 마음이 잠시 쉬어가

는 시간이 되고자한다”고 밝혔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